

퍼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소비자는 시험결과를 참고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인증치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4월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LED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LED조명 인증제품 확대, 인증 기술 기준 상향 조정, LED 조명 제품 성능 표시 라벨 부착, 캘리퍼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캘리퍼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캘리퍼 제도 적용 초기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만큼 국내 시장에 본격 적용되는 경우 LED조명 시장 업계 판도를 흔들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단은 이미 인증을 획득한 민수용(B2C) LED조명은 물론이고 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공공용(B2G) LED조명까지 수거해 양산품의 광효율, 광속유지율 등 인증 당시 성능과 현재 성능을 비교한다. 또 LED조명 공장도 불시에 방문해 샘플을 수거한 뒤 시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의해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 외 한국산업규격(KS) 수치까지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LED조명 중 대다수의 성능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성능 미달로 판명되는 제품은 인증을 취소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등 그간에 제공한 인센티브도 회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LED조명 고효율 인증을 받은 업체·제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함량미달 제품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공단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LED조명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308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522개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제품 중 90%가량은 사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만 업계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 이익도 충족하는 접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11.4.5]

3D

◆ 꿈의 디스플레이 눈앞에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와 액정(Liquid Crystal) 그리고 전기영동 디스플레이(Electrophoretic Display) 등이 있다.

이 중 풀 컬러(Full Color)와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동영상 구현 그리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 등이 요구되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의 주요 기술 중 AMOLED를 이용한 ‘플렉서블 아몰레드’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가볍고, 망치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는 강도와 공간적이며 효율적인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는 강점 때문이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향후 10년 내 폭발적인 성장전망이 나오는 장밋빛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전세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0년 약 3400만달러 규모에서 2015년 약 24억달러, 2020년에는 약 3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1.3.30]

기 타

◆ 감압식 터치스크린 시장은 신소재의 경연장

감압식 터치스크린 시장이 신소재 상용화의 ‘격전장’으로 부상했다. 감압식 진영은 정전용량식에 밀려 터치스크린 내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지만 최근 첨단 소재 적용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3월 27일 감압식 터치스크린 업체들은 최근 탄소나노튜브(CNT)를 시작으로 전도성 폴리머, 그래핀 등 새로운 물질로 터치스크린의 핵심 소재인 ITO(인듐주석